역사와 자연, 현실이 공존하는 가슴 시린 길

평화누리길 파주 첫째길(파주출판도시 이채 사거리~문발IC~송촌리 다리~파주NFC~통일동산 9.6km, 3시간10분 소요)은 이국적 정취가 느껴지는 출판도시를 통과해 인공습지를 지나면 곧바로 농촌마을로 이어지고 문발리, 신촌리, 송촌리를 지나면서 좌측으로 자유로와 한강 하구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눈에 들어와 탁 트인 오솔길을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구간이다.

올여름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잡기가 무척 힘들어 일기예보에 온 신경을 기울인 덕분인지 모처럼 햇빛이 쨍쨍 나와 기분 좋게 이채 사거리에서 발걸음을 뗀다. 고양시의 평화누리길과는 사뭇 다르게 약 20m마다 평화누리길 이정표가 보인다. 무척 반갑고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만 눈에 띄게 이정표가 많은 건 아닐까 싶어서다.

자유로의 낙조.

출판도시의 평화누리길 이정표(왼쪽). 자유로 옆길 진입로.

나중에는 이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지만, 시작은 좋았다. 횡단보도를 건너 삼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니 오른쪽으로 생태늪지 조성지가 펼쳐진다. 최근의 집중호우로 쓰레기 잔해가 여기에도 많이 보인다. 그 옆 보행자 길에는 우레탄이 깔려 있어 걷기에 아주 쾌적하다. 늪지 옆 잔디밭에는 피서 나온 시민들이 그늘막을 치고 많이들 쉬고 있다.

다시 이정표를 따라 우회전해 문발IC 쪽으로 나아간다. 얼마 걷지 않아 파주출판문화단지 2단계 공사를 알리는 공사장 칸막이 벽체에 파주 DMZ(비무장지대) 트레킹 이정표와 파주 평화누리길 이정표가 나란히 붙어 상견례를 하고 있다.

시멘트 포장길과 논두렁이 함께하는 트레킹 코스

문발IC 옆길부터는 시멘트길이다. 땅에서는 열기가 확확 올라오고 옆으로는 공사장 덤프트럭들이 휙휙 달린다. 필자야 사명감으로 걷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에겐 트레킹을 절대 말리고 싶은 길이다. 너무 위험하다. 옆으로 뻗어 있는 자유로와 나란히 보행자 도로 및 누리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완공되면 이런 위험이 사라지겠지만 아직은 너무 위험하다. 나아지길 기대할 뿐이다.

이 구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도보 순례자는 우리뿐이다. 고질적인 화장실 문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누리길같이 누구나 걸으라고 만드는 길에서만이라도 꼭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스팔트가 언제 끝나나 하며 쭉 걸어가니, 마침내 소라지로 23번지라는 팻말과 함께 우회전하라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아스팔트를 벗어남과 동시에 덤프트럭의 공포에서도 해방이다. 처음으로 간이 화장실도 보인다.

농로로 접어들어 왼쪽 밭에는 고구마, 오른쪽으로는 언덕 위의 전원주택들과 들판의 벼, 고추밭을 쳐다보며 모처럼 행복감에 젖어 발걸음을 내디딘다. 한결 가볍다. 농로는 언덕 위 조그만 동산으로 이어진다. 언덕 위로 올라서니 2차선 도로와 함께 파주 첫째길이란 이정표가 나타난다.

통일동산이 3.5km 남았단다. 내려다보니 처음으로 한강이 보인다. 송촌리 들판과 어울려

조망이 멋지다. 조금 전의 덤프트럭들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인생도 이렇겠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현대해운 간판이 붙은 건물을 지나니 송촌리 버스종점 정류장이 나타난다. 흡사 시골 외딴곳의 버스정류장 같다. 그 묘한 정취에 이끌려 정류장의 기다란 의자에 앉아 준비해간 음료수를 꺼내 한 잔 마신 후 이정표를 따라 왼쪽으로 접어든다. 야호! 처음으로 만나는 숲속 길이다.

조금 따라 걷다 보니 갈림길이 나온다. 갈림길이면 어디 이정표가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는 않고 이정표가 있어야 할 곳에 메기요리 간판만 크게 서 있다. 저 강 너머 멀리 보이는 통일전망대 쪽이려니 하고 어림짐작하며 비탈길을 내려와 마을을 벗어나니, 처음으로 철책선이 가로막는다.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철책선과 나란히 뻗어 있다.

멋진 조망 자랑하는 천년고찰 검단사

자전거도로를 따라 철책선 너머 한강 지류와 철새들을 바라보며 조금 걸으니 송촌교에 다다른다. 나란히 세워진 갑문 시설이 아주 독특하고 멋있다. 다리 난간 위에 쳐져 있는 철조망과 촬영금지 표지판을 피해 저 멀리 뻗어 있는 한강 지류가 멋있어서 사진 한 컷에 담는다. 묘한 죄책감이 든다. 다리를 다 건너니 77번 지방도와 만난다. 참고로 여태껏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곳은 한 곳도 못 보았다.

식수 등을 필히 잘 준비하시길 바란다. 쓰레기 처리 시설 공사 하는 곳을 지나 걸어가니 저 멀리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입간판이 커다랗게 서 있고 그 밑으로 굴다리가 보인다. 이정표를 따라 굴다리를 지나니 왼쪽으로 군부대가 하나 보이고 그 옆으로 한창 공사 중인 길이 나온다. 이어서 길가에 천년고찰 검단사라는 표지가 보인다. 평화누리길은 주위의 문화재와 명소를 마음껏 누리는 길이 아닌가.

검단사(黔丹寺)를 찾기로 한다. 탄현면 성동리 689번지, 한강 하구를 옆에 낀 이 절은 전통사찰 제40호로 지정된 신라 시대에 창건된 고찰이다. 검단사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이 내려다보이는 경승지에 위치한 이름난 옛 절이다. 신라 문성왕 9년 검단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이로 인해 사찰 이름을 검단사로 했다고 한다. 또한 〈동국여지승람〉 기록에 따르면 검단산에 검단사가 있다고 기록돼 있어 고려 때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법화전 안에는 19세기 말에 그려진 불화 3점이 있으며, 그중 검단조사상은 이 절의 창건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포장된 오르막길을 오르면 길게 늘어선 목장승들이 절에 오는 사람을 반기고 있고, 조금만 오르면 한강과 임진강이 마주하는 강물을 바라볼 수 있다. 절은 계단식 산비탈 사면에 기와로 만든 화단이며, 작은 연못의 연꽃과 장독대 위 야생화 수반 등이 잘 어우러지는 정원을 꾸며놓고 있다. 절 입구에는 돌탑 등이 잘 꾸며져 있다. 오래된 요사채와 법화전을 지나 산비탈 하나를 오르면 무량수전과 뒷산이 나오는데, 뒷산은 입산금지다. 전망이 좋음을 위안으로 삼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검단사를 내려온다.

공릉천 하구습지.

송촌리 들판(왼쪽).
송촌리 들판의 이정표.

송촌리 종점(왼쪽).
자유로 옆 방음벽.

자유로 임진각 방향(왼쪽).
파주 통일동산 일대.

조금 더 나아가니 오른쪽으로 파주 NFC(National Football Center)가 나타나고 보도블록 사이엔 성동리 파주 첫째길이라는 이정표가 반갑게 서 있다. 그 맞은편에 오두산 통일전망대 진입로가 있다. 통일전망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승차 후 이동할 수 있다. 오르는 길에서는 자유로와 파주의 벌판이 훤히 보인다.

치열한 역사의 현장, 오두산성

오두산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로 유명한, 해발 112m의 야트막한 산이다. 썰물 때는 걸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임진강과 한강의 교차점, 이른바 교하(交河)라고 하는 지점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파주 지역의 통일동산과 북으로 쭉 뻗은 자유로, 임진강과 한강이 교차하는 광활한 교하의 모습, 더욱이 그 임진강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선전촌과 김일성 사적관이 한눈에 보인다.

1600년 전 고구려와 백제의 피비린내 나는 106년간의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의 현장, 백제 개로왕과 고구려 장수왕의 최후 전투에서 결국 고구려의 승리로 마감된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바로 오두산의 오두산성, 백제 시대의 관미성이다.

역사는 흘러 다시 한민족이 이념을 달리한 채 강을 마주 보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하염없이 서 있고, 통일전망대가 자리 잡아 통일의 염원을 다지고 있을 뿐이다.

역사가 저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다시 통일이 되는 그날을 기원하며 통일전망대를 내려온다. 왼쪽으로 통일전망대를 지나니 통일동산 주차장 휴게소가 나타난다. 오른쪽의 울긋불긋 외장재로 치장한 모텔들을 지나 통일동산 쪽으로 나아간다. 이 길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고 도로 옆 공원 벤치에는 피서 나온 시민이 꽤 많다. 이 일대가 통일동산이다. 통일동산은 따로 동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대 전체를 통일동산이라고 한다. 통일동산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성동리, 금산리 일원의 헤이리마을, 경기 영어마을, 파주 NFC, 주차장, 망향의 존 일대를 통칭하는 것으로 파주시에서 2007년 지구 지정계획이 세워졌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파주 둘째길 시작점을 알리는 이정표를 찾으려고 성동리 사거리를 이 잡듯 뒤졌는데도 결국 찾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얼마 전에 둘째길 코스가 변경된 모양이다. 변경 전 코스인 언덕 위 영어마을에 그 이정표가 있을 줄이야! 이정표도 좀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헤이리마을과 프로방스마을 등 자유로 일대를 헤매며 그 기점을 찾느라 무려 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 코스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경기누리맵을 찾아 디지털과 함께하는 트레킹을 하리라 마음먹으며 파주 첫째길 여행을 마친다. G

글 · 사진 최영환(여행기고가)

임진강 너머의
북한 선전촌 마을.

경기누리맵의 평화누리길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경기누리맵 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http://map.gg.go.kr)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아이폰에서는 '경기산책로' 앱을 내려받아 검색할 수 있다. 경기누리맵 서비스를 사용하면 평화누리길뿐만 아니라 경기 전역의 걷고 싶은 길, 체험여행길, 전통시장길, 오르고 싶은 길, 축제/행사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평화누리길 코너에서는 김포/고양/파주/연천의 모든 평화누리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위치 검색과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즐겁고 편안한 누리길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교통 안내

▶출판도시 이채 사거리
- 지하철 2호선 합정역~환승 시내버스 2200, 200번
- 지하철 3호선 대화역~환승 시내버스 200번
- 경의선 운정역~환승 마을버스 087번
- 경의선 금능역~환승 마을버스 078, 073번

● 콜택시 : 1577-2030